

국립민족학박물관의 복장 데이터베이스 작성과 이용

高橋晴子

오사카쇼잉여자대학 학예학부

1. 머리말

필자는 18년간 복장 및 주변과 관련된 학문분야의 정보가공과 제공 서비스를 행하였다. 색인지 『의료정보Review』를 발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내외의 연구자, 학생, 산업계 등이 원하는 문헌 서비스를 행하였다.

여기에서는 web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1984년부터 국립민족학박물관(이후 민박으로 약칭)에서는 복장문화론을 전공한 大丸弘교수(현재, 민박 종합연구대학원대학 명예교수)의 연구실과 협력하여, 복장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大丸교수가 퇴관한 후인 1996년부터는 컴퓨터 민족학을 전공한 久保正敏교수와 협력하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민박 Costume Databases(약칭MCD)로 불리우며, 「치장」과 관련되는 9개의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다.

2. 치장의 개념

「치장」은 여러가지의 조어로 해석되지만 다음의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이 「치장한다」라고 하는 행위에는 의복과 장식품 등의 물질을 몸에 걸치는 행위와 화장, 머리형태 뿐만 아니라 문신의 모양 등 신체에 가공을 행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감각과 자신의 신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말할 수 있는 판단을 근거로 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감각·판단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문화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치장한다」는 행위와 신체적 자각,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복장」이라는 개념은 불충분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복장」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 신체 및 신체를 치장하기 위한 「물질」과 이러한 것을 유지하는 「행위」들의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치장」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그 개념에 해당하는 데이터 수집·가공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대상이 되는 미디어도 문헌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화상, 표본자료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3. 민박 코스를 데이터베이스(MCD)

9개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합계 수는 약 20만 건이다. 9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민박 홈페이지를 통해서 web상에 공개하고 있다.

URL은 <http://www.minpaku.ac.jp>이다. <복장database>의 버튼으로 각 데이터베이스에 access할 수 있다. 5개의 데이터베이스는 문헌 데이터베이스 4개와 의복표본의 화상 데이터베이스 1개로 되어 있다.

3.1. 문헌 데이터베이스

<복장관련 일본어잡지기사database=current> <복장관련 일본어잡지기사database=1880~1945>의 이 2개의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어디에서 어떠한 논문·기사를 썼는가를 알려주는 서지정보와 데이터에 제시된 내용의 분석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reference형 데이터베이스이다.

(1) <복장관련 일본어잡지기사database=current>

1967년부터의 일본과 관련된 문헌이 수록되어 있고, 「의료정보류-1976~2000」(오사카쇼잉여자대학 의류정보실)의 데이터 및 高橋晴子·大丸弘의 「복식문헌목록67/88」, 「복식문헌목록88/93」, 「복식문헌목록94/00」(간행예정)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재 수록건수는 약 54,000건 정도이며, 1998년 6월까지의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다.

수집 대상자료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고 및 학회지 등의 학술잡지가 약 1,300종, 상업잡지가 약 300종이며, 연간 수록건수는 약 3,000건이다.

검색항목은 서지사항 이외에 OWC(Murdock, 1975)에 기초를 둔 지역명과 쓰여진 내용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연대, 특정 시대명, free keyword, 전문분류코드, 치장개념코드 혹은 코드에 해당되는 말이나 저자의 초록이 있다. 전문분류코드는 독자의 두 가지 면을 조합한 facet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장 개념코드는 일종의 thesaurus인 것이다. 전문분류표 및 신장 개념코드표의 구조에 관해서는 다음에 논하겠다.

(2) <복장관련 일본어잡지기사database 1880~1945>

20세기 전반의 부인잡지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일반 잡지를 포함한 약 100종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reference형 데이터베이스이며, 수록건수는 약 5,500건이다.

검색항목은 (1)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하다. 제2차세계대전 전의 잡지에 관해서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색인 지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원문입수가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정도로 간단하지는 않다.

이상 2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원문 입수에 관해서는 국립정보학연구소(NII)가 web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Webcat(대학도서관 목록검색)으로 게재지의 소장처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며, URL은 <http://webcat.nacsis.ac.jp>이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전의 잡지에 관해서는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적기 때문에 이 URL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는 국립국회도서관에 문의하여 찾아보는 것이 좋다.

(3) <복장관련 일본어도서database=1868~>

이 database는 高橋晴子大丸弘의 『복식관련도서목록 명치1년~소화23년』과 猿田佳那子が 편찬한 『복장관련도서목록 1947~1993』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수록건수는 약 12,000건이다.

1868년부터 1948년까지의 도서에 관해서는 도서의 소장처가 있는 기관명도 알기 쉽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이 기간에 발행된 도서에 관해서는 전문도서뿐만 아니라 일반도서의 치장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여 index로 하고 있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

조사대상이 된 기관은 국립국회도서관, 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의 합계 92관이다. 국립국회도서관, 구제국도서관의 소장도서에 관해서는 서고에 있는 모든 도서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단, 문학작품, 연감·통계류, 교과서, 아동도서는 제외시켰으나 수필, 에세이, 전기 등은 수록하였는데, 이는 뜻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의 전도자로서 명성이 높은 賀川豊彦은 『여성찬미와 모성승배』라는 저서에, modern girl에 대해서 무려 8쪽에 걸쳐 나타나 있다는 것을 index해 놓았다.

또,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어 상기 도서 『복식관련 도서목록 1868년~1948년』에서는 책의 끝부분에 저자명 색인과 키워드 색인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색인 자체는 근대 일본의 문화와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어 목록에 나타난 것을 읽는 것에 대한 흥미가 증가되고 있는 색인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것이 집약될 수 없다는 좋은 예가 된다.

1868년부터 1948년까지의 도서에 관해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적당한 색인지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유니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

검색항목은 도서의 서지사항 및 소장처 외에 치장개념코드, 전문분류코드 등 앞의 잡지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검색항목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1868년부터 1993년까지 출판된 도서의 검색이 가능하나, 가까운 장래에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출판된 도서의 검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1948년 이후의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도서가 web상에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길 바라며, URL은 <http://www>.

ndl.go.jp이다.

(4) <복장관련 외국어민족지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어의 민족지 전반부터 장식관련 부분을 추출해 index로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수록건수는 약 2,500건이다.

앞에서 얘기한 <복장관련 일본어도서 데이터베이스=1868년~>의 1948년부터의 일반 일본도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고 있다. 검색항목도 앞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검색항목으로 준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역의 검색항목에 「한국」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1904년부터 1988년까지 쓰여진 6건의 데이터가 표시되며, 이중 1건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Hamilton, Angus 저 「Korea」(William Heinemann. London. 1904)의 34쪽부터 41쪽까지는 대체로 그 책이 출판된 시기의 한국의 세탁, 나체, 화장 등의 장식에 관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치장개념 코드에 따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에, 앞에서 서술한 4가지의 데이터베이스에 공통으로 이용되고 있는 내용분석 코드이며, 전문분류표와 신장개념 코드 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고자 한다.

3.2. 전문분류표

전문분류표는 독자의 분류표로 <Table 1>에 따른 facet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쪽의 면(가로축)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흐름(flow-step)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다른 쪽의 면(세로축)은 물건으로서의 각각의의복도는액세서리(item)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분류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조합하여 얻을 수 있는 영문자 2문자와 숫자 1문자의 3항의 코드가 전문분류 코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견의 염색」을 주제로 하는 문헌은 가로축의 표면특성(E)과 세로축의 포지(Q)를 조합한 EQ1의 코드로 나타나게 된다.

3.3. 치장개념 코드표

치장개념 코드표는 개념의 유사관계, 계층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thesaurus로,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유사한 내용을 가진 언어를 모아서 그룹전체에 2개의 영문자와 2항 이상의 숫자를 조합하여 만든 코드를 부여한 것이다.

이 코드표는 상기의 전문분류의 중심구조를 사용하여 전개한 것으로 치장개념 코드의 영문자 2항과 숫자 1항은 전문분류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thesaurus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용어에 우선어, 비우선어의 구별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오해를 줄이기 위해 thesaurus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는 코드범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코드에 해당하는 언어, 바꿔 말하면 유의어, 동의어의 어떤 말을 사용 하여도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말에는 제한이 있지만 마치 free keyword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검색환경이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Table 1>의

Table 1. 전문 분류표

FLOW-STEP		A	B				C 비즈니스·물류관련				D 디자인 관련				E 기술 관련				F				
ITEM		총기	소비자 관련	행정·법현	교육	정보	경제·유통	경영·노동	중간유통	운반·창고	무역·국제관계	디자인 시스템·기법	미의 이론·심리	신체·생리·환경·성	착장법·의생활	프리젠테이션	제조공정일반	표면특성	입체구성기술	보존·손질	제조업	소매일반·경영시스템	판매기술업
P	총기	0	0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Q	포지	0	0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R	man's wear	0	0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S	woman's wear	0	0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T	아동복, 유아복	0	0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U	의복의 형태·착장부분	0	0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착용자 착용목적, TPO	1 2	4	5	6	7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2	3
V	화복	0	0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W	장신구 일반	0																					
	보석 액세서리품	1																					
	신체에 보조적으로 사용	2	0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머리 장식품	3																					
	소지한 것	4																					
	신는 것	5																					
X	헤어·화장	0	0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Y	설비, 장치, 기기, 약품	0	0	1	2	3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Table 2. 치장개념 코드표(일부)

EQ
12 文樣; 模樣; 柄 RT(Related term) 圖案; 平面디자인 DP003
123 紋章; 家紋 RT 象徴; 심볼 DP163
124 染織文樣; 衣服文樣 RT 和服柄; 和服文樣 EV12 RT 紋織物 EQ143.01
126 부분적 색 차이; 파치카라; 좌우반복; 상하반복
127 文樣構成
128 文樣名 (전통적 문양명)
.00 鎬
.01 格子
.02 渦卷
.03 花柄
RT EQ177.1

EQ12에 적합한 말의 文樣, 模樣, 柄의 어떤 말을 이용하여도 EQ12의 코드를 가지는 데이터는 검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치장개념 코드표에는 약 1,700코드, 용어수는 약 3,000어가 수록되어 있다. 치장개념의 구조의 자세한 사항은 「服裝檢索語辭書(MCD thesaurus)의構造」(大丸, 高橋, 1985)와 「MCD身裝概念code表; MCD thesaurus」(大丸, 1991)의 문헌을 참조하길 바란다.

3.4. 화상 데이터베이스

의복표본화상 데이터베이스는 국립민족학박물관 의류 수장고에 수장되어 있는 의복표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복」은 「장식」의 아래 개념으로 3개의 개념-의복, 액세서리, 화장·만혼 등의 신체가공의 하나로 위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동일한 의류 수장고에 수장되어 있는 모자, 신발 또는 좁은 의미의 액세서리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단순한 미가공의 천, 예를 들면 인도의 sali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의복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과 의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과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형의상이나 의복의 모형들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의복」의 개념 또는 화상 데이터베이스의 표본 데이터의

기록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固有屬性分析による衣服標本catalog」(大丸, 1991)를 참조하길 바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998년에 발행된 衣服標本catalog(大丸, 1998)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와 캐터로그의 검색항목 설정은 1985년의 문헌(大丸, 1985) 및 1991년의 catalog(大丸, 1991)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 1991년의 캐터로그를 중심으로 CD-ROM에 데이터베이스(高橋, 1998)로 작성하고 있다.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관해서 서술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록대상 데이터는 의복표본의 범위 안에서 일본 2,032점, 일본이외에서 5,183점의 합계 7,215점이다.

전문분류 코드 및 치장개념 코드는 문헌의 공통분석 코드로서 이용하고 있지만 의복표본은 의복의 재질과 구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기술면에서의 전문성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디자인·봉제의 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요가 비교적 많다는 것으로 보아 의복표본에 관한 전용의 검색항목을 준비하고 있다.

검색항목은 표본번호에서부터 비교까지 포함한 12항목으로, 여기에서는 이하의 5항목 - 표본번호, 민족·지역분류(OWC를 기초로 하여), 현지 의복명, 민박표본명, 수장장소 - 은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데이터를 따르고 있다.

이하의 7항목은 여러 독자의 의복표본 분석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검색하는 순서는 각 분석항목 내용의 pull-down menu에 따라 알 수 있다. 그래서 각 항목의 pull-down menu에 나타나는 말과 fraise를 클릭하면 검색항목의 가운데에 자동적으로 입력된다. 또 검색자 스스로가 단어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7항목으로는 (B) 길이mark, (C) 형태mark, (D) 포지특성mark, (E) 소재mark, (F) 구조기술mark, (H) 표준의복명, 그리고 비교이다. (B) 길이마크에서 시작하고 있는 A의 마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는 1991년의 검색항목을 개정한 결과이다. 원래 A의 마크는 색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색의 처리 및 시선을 끄는 색의 판단 등 여러 명의 분석자 사이에서 분석한 변동이 적은 것이 이 마크를 배제하게 하였다.

현재는 색에 약한 특징이 보이면 각 분석자가 판단한 경우는 비교에 free keyword로 서술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 그 이외의 검색항목의 내용에 관해서도 분석경험을 가지기 때문에 개정을 첨가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것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검색하기 쉬운 호칭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어 (H) 표준의복명을 채용하고 있다. 일본과 일본이외로 구별한 것 중 일본이외에 관해서는 유럽계 의복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의복 전체를 유럽계 의복의 명칭으로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대체로 의복의 타입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각 의복명의 뒤에 “형”을 붙여 표현하고 있

衣服標本索引データベース
【詳細情報表示】 2/352 件

項目名	内 容
標本番号	H15145
OWC	AA
民族・地域名	朝鮮半島, 韓国, 大韓民國
現地衣服名ヨミ	ウォンサム
形態	C4 腰開衣
標準衣服名	コート型
収蔵場所	IC-23-03
丈	B5:120cm~
素材	E10 絹
構造技術	F20: 股または袖付けに縷を用いている F47: 袖がついている F75: 上半身縷または全身縷の身頃がうちあわせ F76: 固定的な留め具をもつ F77: 非固定的な留め具をもつ - ひも, おびなど
備考	白 絨 紫 縷地 着物風紳 スクエアスリーブ風

画像をクリックすると、拡大または関連する画像が表示されます



Fig. 1. 검색결과 2단계의 표시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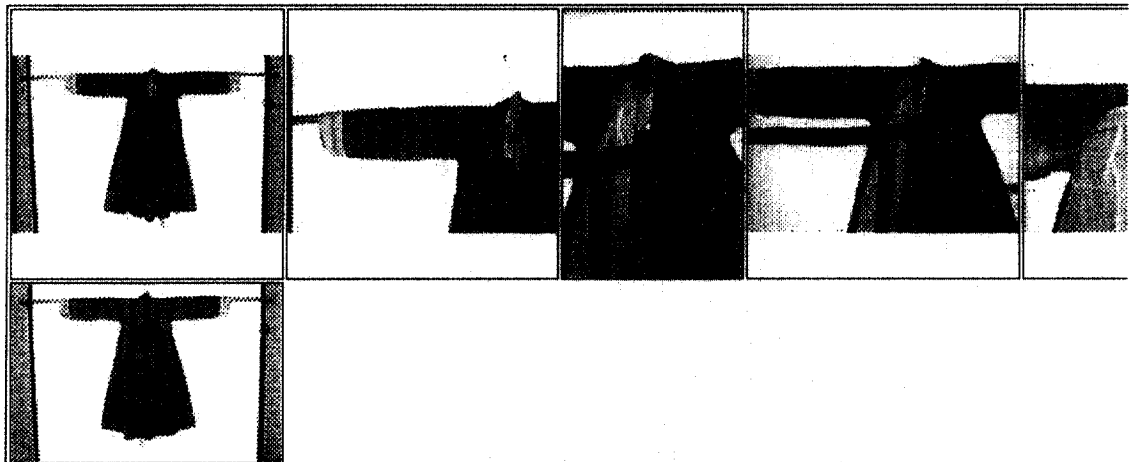


Fig. 2. 검색결과 3단계의 표시화면(Fig. 1의 화상만을 클릭한다).

다. 예를 들면 자켓으로 나타나면 자켓형이라고 한다.

표준의복명의 결정기준 등, 검색항목의 개정에 관해서는 참고문헌 5의 문헌(猿田, 田中 담당부분, pp.5~18)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Fig. 1>에서 <Fig. 2>는 민족·지역분류의 검색항목을 사용해 「한국」으로 검색한 결과의 2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표시로 나타난다. 1건의 표본자료에 관해서는 전면, 뒷면, 측면의 위치에서 전문가의 눈을 통하여 중요한 항목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촬영하여 평균 4매의 화상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 각 화상은 다음의 2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한국」으로 검색한 결과, 352건의 표본이 hit했다.

이상은 현재 국립민족박물관의 net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치장 데이터베이스이다. 미공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횡단 검색시스템(高橋 외 2인, 2000) 또는 금후의 화상 데이터베이스의 구성(高橋, 1999) 등 소개하고 싶은 것이 남아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web상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소개만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8년 간의 데이터베이스작성과 서비스활동을 중심으로 documentation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과제도 포함하여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을 진술한다.

4.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서비스 활동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것에는 데이터베이스 작성 그 자체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관점에서 우리들은 복장관계의 정보과학에 관한 잡지 「Fashion Documentation」(高橋 외 1인, 1991~1999)를 발행하였다.

이 잡지의 출판목적은 치장관련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집·가공·서비스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연구를 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documentation」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 「정보과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결국 그것은 정보 가공의 원점은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정보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을 총체적으로 “색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각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아직 documentation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documentation을 연구가 아닌 작업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는 영국 및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의 “데이터를 색인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색인에 대한 의식이 높다는 것을 각 관의 실제의 정보서비스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을 예로 보면 대개 파리의 Richelieu를 통해 1986년경 국립도서관의 입구를 들어오면 정면에 도서열람실이 있고 그 지하를 참고도서실로 하고 있다. 참고도서실에 처음으로 놀란 일은 분류카드가 없다는 것이며, 책의 제목과 저자명 카드와 그 밖의 색인에 따른 색인카드만 있다.

색인카드는 1890년경부터 존재하고 있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

는 주제의 책을 찾을 때에는 모두 색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당연히 이 색인카드의 말은 통제가 되기도 하고 thesaurus가 가능하며, 몇 번의 개정을 반복해 왔었다. 이때에는 미국국립도서관의 「Subject Headings」를 캐나다 Laval 대학이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이것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색인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이미 쓰여진 것에 첨가하여 쓰는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색인카드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도 작성하고 있다. 이 thesaurus는 현재 「Rameau」라고 불리는 thesaurus로 발전하여 자료의 타입에 관계없이 문자자료나 화상자료에도 이것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주제 및 내용의 분석을 행하여 색인을 추출하여 지금에는 데이터베이스만을 작성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지명, 인명, 사항을 알파벳순으로 나타내어 색인하는 습관이 16세기 후반에 이미 행하여져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래 색인에 대한 생각이 앞서나가고 있었던 것 같다.

일본은 Japan Marc와 함께 국회도서관의 소장목록을 기계가 읽을 수 있었던 시대, 또 이것을 CD-ROM에 저장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을 1988년경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기계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여러 카드를 손가락으로 넘겨 찾은 후 책을 청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료정리의 발상은 색인의 습관이 이미 있었던 16세기후반부터 컴퓨터를 사용한 정리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분류번호 이외에 1권의 책에 대해서는 4~5개의 색인을 추가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서지사항과 함께 입력하여 최적의 reference형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97년의 겨울 오랜만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는 기계화가 되어 있었다. 옛날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있어서 그러한 변화는 상당히 드라마틱하였다. OPAC에서는 1건의 서지 데이터에 상세한 색인이 병행되어 있었다. 현재, 도서와 잡지의 OPAC-BN-OPALE 그리고 비도서자료의 OPAC-BN-OPALINE는 web상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문에 기술된 중요한 고유명사도 또 색인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Japan Marc등의 데이터베이스와도 크게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documentation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 인식의 결핍은 사서 혹은 documentalist의 지위가 저하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엘리트 사서는 고문서학교(Ecole des Chartes)의 출신이 많다. 이러한 경력의 사람들은 대체로 사서-Biblio-thecaire의 직명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예를 들면 루블미술관의 회화의 archives 등의 자료 전문가는 documentalist라고 불리고 있다. 이 documentalist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후 도서관정보학전공의 대학원의 2년 과정을 거쳐 양성되어진다. 또 한국에 있어서도 사서의 학력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documentation의 현상을 상세하게 살펴본 보고(田窪, 2000)가 있다.

프랑스도 한국도 사서 및 documentalist를 전문직으로 인정

하고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소수의 대학에서만 도서관정보학을 전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대학의 자격과목으로서의 사서과정으로, 사서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점에도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사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일본의 documentation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는 연구자만의 전매특허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documentation은 컴퓨터의 영역과 그에 따른 서비스를 수반하여 작업하는 것이 아닌 학문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진취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에 전념하지 않으므로 대량의 데이터를 소장하고 있는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정보공개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는 연구자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서 및 documentalist가 연구자와 서로 협력하지 않는 지금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documentation을 수행하고 있는 본인과 사서와 documentalist의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데이터의 디지털화, 인터넷상에서의 데이터의 공개, 이에 반해 데이터의 표준화 등의 문제 또는 종래의 형식에서 man to man으로의 정보공개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 등 documentation의 연구과제는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각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좋고 나쁜가가 판단되는 시대가 되었다. 일본의 사서 및 documentalist의 역량이 국제적으로 저울질되는 것 또한 시간의 문제이다.

참고문헌

G. P. Murdock (1975) "Outline of World Cultures" Human Relations Area Files.

大丸 弘, 高橋晴子 (1985) 服裝檢索語辭書(MCD thesaurus)의構造. 國立民族學博物館 研究報告, 10(3), 681-723.
 大丸 弘 (1991) MCD 身裝概念code表MCD thesaurus. Fashion Documentation, 1, 47-112. 486.
 大丸 弘 (1991) 固有屬性分析による衣服標本catalog. 國立民族學博物館 研究報告, 13, 486.
 大丸 弘 久保正敏 (1998) 國立民族學博物館衣服標本catalog. 國立民族學博物館 別冊, 19, p.683(part1), p.295 (part2).
 大丸 弘 (1985) 衣服標本屬性論; MCD標本thesaurus. 國立民族學博物館 研究報告, 9(3), 533-570.
 高橋晴子 編集責任 (1998) MCD-國立民族學博物館所藏 衣服標本 database.
 高橋晴子, 八村廣三郎, 久保正敏 (2000) 身裝multi media database의 作成とその評價. 情報管理, 43(9), 791-800.
 高橋晴子 (1999) 身裝畫像databaseにおける檢索項目の構造. Art Documentation研究, 7, 3-11.
 編集責任 高橋晴子, 事務局 神戸文化短期大學, 1-8號 1991-1999.
 田窪直規 (2000) 韓國のArt Documentationの狀況から日本を省みる. Art Documentation 研究 8, 12-21.



高橋晴子 (Haruko Takahashi)

神戸親和女子大學文學部 英美文學과 졸업
 교토세이카대학, 교토외국어대학 강사
 오사카쇼인여자대학 학예학부 조수(의류정보실 담당)

(현재) 오사카쇼인여자대학 학예학부 전임강사(도서관학담당)
 국립민족학박물관 연구협력자, 국립민족학박물관 복장데이터베이스 편집책임자, Art Documentation연구회 간사
 Tel: +81-6-6723-8181, Fax: +81-6-6723-8348
 E-mail: RXF13365@nifty.ne.jp